

# 한·말레이시아,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

김남석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장 (nskim@kiep.go.kr, Tel: 044-414-1080)

신민금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mgshin@kiep.go.kr, Tel: 044-414-1169)



## 차 례

1. 배경
2.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의 경제 현황
3. 한·말레이시아, 한·필리핀 경제의 상호 보완성
4. 관계 격상의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시사점

## 주요 내용

- ▶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2025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올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국과 필리핀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각각 수립함.
- ▶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모두 저성장 국면 및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입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통상환경 개선을 통한 양자 무역 확대는 양국 모두에 후생 증대를 가져다 줄 수 있음.
  - 2022년 11월 집권한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행정부는 '신산업 정책 2030'을, 필리핀 정부는 중기 개발계획인 '필리핀 개발계획 2023~2028'과 '필리핀 수출개발계획 2023~2028'을 입안하여 시행 중임.
  -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3개국의 비교우위 품목 분포는 한·말레이시아, 한·필리핀 간의 추가적인 무역 확대가 당사국 소비자/기업들에 저렴한 선택지를 더 많이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고, 양의 후생 증대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을 시사함.
- ▶ 말레이시아가 미·중 패권경쟁하에서 대체 생산기지로 주목받음에 따라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투자는 최근 증가세인 반면, 대필리핀 투자는 부진한 상황임.
  - [한·말레이시아] 수소, CCS, 전기차 배터리 부문을 중심으로 민간의 활발한 말레이시아 현지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국 부처 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핵심광물, 방산 부문에 대한 협력도 향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한·필리핀] 핵심광물(필리핀의 광업 관련 규제 완화), 원전(필리핀의 원전 수요 확대), 방산(필리핀 군의 현대화 계획) 등에서 협력 확대 호재가 발생할 수 있음.
- ▶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한국은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과의 경제협력을 고도화할 수 있음.
  - [한·말레이시아] 올해 재개된 양자 FTA 협상 단계에서 양국이 기존에 참여 중인 다자무역협정에 담지 못했던 신통상 분야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완화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외교관계 격상을 계기로 핵심광물 및 방산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필리핀] 양자 무역이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대필리핀 수입 품목·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필리핀 인적 교류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 1. 배경

■ [말레이시아]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2025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올해 11월 양자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양국 관계 발전과 상호호혜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 말레이시아 안와르 총리의 방한은 총리 취임(22. 11.) 이후 최초의 방한이자, 5년 만의 말레이시아 총리 방한으로서 의의가 있음.
- 한국은 2024년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수립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기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2025년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보다 강도 높은 협력을 추진할 예정임.
-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정무 및 안보, 경제, 문화·교육·관광, 지역 및 국제협력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 △무역·투자, △국방·방산, △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함.
  - [무역·투자] 양국은 2019년 이후 5년 만에 협상이 재개된 한·말레이시아 양자 FTA를 2025년까지 타결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상품 분과에 더해 서비스·투자·디지털·바이오·그린 등 분과를 추가하여 미래지향적·포괄적 FTA로 추진하기로 함.
  - [국방·방산] 양국은 2023년 말레이시아의 FA-50 경공격기 18대 도입 계약을 바탕으로 양국 간 방산협력 모멘텀을 이어가기로 합의함.
  -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양국은 LNG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에너지 협력을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온실가스 감축 등 미래산업 분야로 확장해 고부가가치 녹색경제로 함께 나아가기로 함.
  - [핵심광물] 한국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말레이시아와 핵심광물 협력 MOU를 체결하여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함.

■ [필리핀] 한국은 올해 필리핀과의 수교 7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안보, 경제협력,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 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문제 등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한·필 FTA의 조속한 발효 등 무역 및 투자 협력,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협력, △경제 및 개발 협력 등의 분야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음.
- 양국은 활발한 인적교류가 중요한 협력 기반임을 강조하고, △노동자 권리 보호,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모색, △첨단과학기술 분야 인적자원 개발, △문화교류 확대, △고등교육 교류 확대 등 인적교류 및 사회문화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함.
- 한국과 필리핀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민간·정부 간 MOU를 체결하여, 공급망·인프라·에너지·방산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 한·필 비즈니스포럼에서 원전·에너지(3건), 건설·인프라(4건), 항공정비·방산(2건), 농업(1건), 유통(2건), 협력 플랫폼(1건, 한국경제인협회-필리핀상공회의소) 등 13건의 민간 MOU가 체결됨.
  - 필리핀은 니켈 생산량 세계 2위, 코발트 생산량 세계 4위 등 광물자원 보유국이고,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바,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과 필리핀 바탄원전 타당성조사 관련 MOU에 관심이 주목됨.

표 1. 한·말레이시아, 한·필리핀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상대국	개최시기/ 국가	주요 성과
말레이시아	'24. 11.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정부·안보, △경제, △문화·교육·관광, △지역·국제 협력 강화 의지 확인</li> <li>- 경제협력 확대: △무역·투자, △국방·방산, △에너지, △핵심광물 등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li> <li>- 온실가스 감축, 교육 및 인적교류 협력 확대 추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협력 MOU, 파리협정 제6조 협력 MOU, 고등교육 협력 MOU 체결</li> </ul>
필리핀	'24. 10.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필리핀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안보, △경제 협력,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 △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문제 등 분야 협력 강화</li> <li>-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 체결: 핵심광물 탐사·기술개발, 원자재 공급망 중단 시 상호지원</li> <li>- 바탄원전 타당성조사 협력 MOU 체결</li> </ul>

자료: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의 경제 현황

### 가. 경제성장 경로와 중진국 함정

■ 말레이시아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고속 성장을 거듭하였으나, 1997~99년 기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전의 고속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여 말레이시아 경제성장 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옴.

- 1990~94년의 5개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9.3%에 달했으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는 5개년 평균 성장률이 5%대 내외에 머물렀다.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역성장 이후 2022년 8.7% 성장을 통해 빠른 회복을 달성했으나, 2023년에 다시 3.7% 성장률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의 성장률로 복귀함.
- Woo(2011)<sup>1)</sup>와 Perkins *et al.*(2022)<sup>2)</sup>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1971년 신경제전략(New Economy Policy)과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일련의 중공업 진흥정책이 아시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말레이시아의 고속 성장에 기여했으나, 지속적인 산업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는 정체된 중요소생산성 성장이 나타남.
  - 김남석 외(2024)<sup>3)</sup>는 말레이시아가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기 이전에 경제성장 수렴(economic growth

1) Wing Thye Woo 석좌교수(UC Davis)의 2011년 노팅엄 대학교 특별 강연 자료, "Understanding the Middle-Income Trap in Economic Development: The Case of Malaysia," The 2011 World Economy Asia Lecture.

2) Perkins, D. H., Rasiyah, R., and Woo, W. T.(2022), "Explaining Malaysia's Past Economic Growth," *Malaysia's Leap Into the Future: The Building Blocks Towards Balanced Development*, pp. 25-71, Singapore: Springer Singapore.

3) 김남석, 이재호, 신민규, 김제국(2024), 『동남아 주요 5개국의 통상전략과 경제성장 경로: 수출주도성장전략의 평가와 전망』,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4-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convergence) 현상을 겪으며, 고소득 국가 진입 이후에 수렴 현상을 겪은 동북아시아 3국(한국, 일본, 중국)과는 다른 경제성장 경로를 걷고 있다고 진단함.

■ 필리핀은 1980년대 초반까지 동남아시아에서 1인당 실질 소득이 상위권에 속했으나, 1980년대 초반 태국의 추월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1990년대 초반)와 베트남(2020년대 초반)에도 추월을 당하며 중간국 함정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옴.

- 197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기까지 아세안 주요 신흥국(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중에서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경제 추격(economic catch-up)의 기회를 놓쳤으며, 이후에도 5% 내외의 경제성장률에 그치며 오히려 후발 개도국들에 추격을 허용함.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역성장 이후 2022년 6% 성장을 달성했으나, 2023년에 다시 3.9% 성장률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의 성장률로 복귀함.
- 생산성이 높은 산업부문이 지속적으로 높은 고용 비율을 흡수하는 ‘성장 유발형 구조적 변화 (growth-enhancing structural change)’가 필리핀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산업 발전과 인적자본 형상 간의 선순환 구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김남석 외(2024)<sup>4)</sup>는 위의 사실을 확인하며 필리핀의 구조적 변화가 동북아시아 3국(한국, 일본, 중국)이 겪었던 성장 유발형 구조적 변화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함.

## 나. 수출주도성장전략 입안 고도화

■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모두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의 한계를 경험하였으며, 수출 품목의 구성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조합으로 구성되어왔음.

- 말레이시아는 보호무역적인 수입대체산업화와 유치산업 보호를 통한 수출주도성장전략을 병행해왔으나, 수입대체산업이 수출산업으로 고도화되지 못함.<sup>5)6)</sup>
- 필리핀은 미국의 후원하에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 해방 이후 수십 년간 지속해왔으나,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의 동력 자체가 약해짐.<sup>7)8)</sup>
- Hausmann *et al.*(2007)<sup>9)</sup>이 고안한 수출 생산성 분석<sup>10)</sup>을 동남아시아 주요 신흥국에 적용하면, 말레이

4) 위의 자료.

5) Alavi, R.(2006), *Industrialization in Malaysia: import substitution and infant industry performance*, Routledge.

6) Wing Thye Woo 석좌교수(UC Davis)의 2011년 노팅엄 대학교 특별 강연 자료, “Understanding the Middle-Income Trap in Economic Development: The Case of Malaysia,” The 2011 World Economy Asia Lecture.

7) Maxfield, S., and J. H. Nolt(1990), “Protectionism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 US sponsorship of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in the Philippines, Turkey and Argentin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4(1), pp. 49-81.

8) Maxfield and Nolt(1990)은 미국정부가 미국 중간재 수출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필리핀의 수입대체산업화를 후원했다고 분석함.

9) Hausmann, R., J. Hwang, and D. Rodrik(2007), “What you export matters,” *Journal of economic growth*, 12, pp. 1-25.

시아와 필리핀은 수출 품목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조합으로 구성되어왔음.

- 이는 동남아시아 내에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과는 대조되는 양상으로,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 입안해온 수입대체산업화전략 및 수출주도성장전략이 경제성장 측면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았음을 나타냄.<sup>11)</sup>

■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양국은 적극적인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고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위한 활로를 찾고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자 시도 중임.<sup>12)</sup>

- 2022년 11월 집권한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행정부는 ‘신산업 정책 2030(NIMP 2030: New Industrial Master Plan 2030)’을 발표하고,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4대 미션(경제 복잡성 증대, 디지털 전환, 탄소감축, 경제안보)을 제시함.
  - 각 미션에서 제조품 수출 확대, 가치사슬 통합, 가치사슬의 고부가가치 활동 확대 등 말레이시아 산업의 수출 규모를 확대하고, 품목을 다양화하며, 수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 패키지가 명시됨.
  - 특히 저숙련 인력 의존 성장 모델에서 탈피하기 위해 단계별로 저숙련 인력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신규 라이선스 발급 시 자동화 요건을 도입하여 자동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 필리핀 정부는 중기 개발계획인 ‘필리핀 개발계획 2023~2028’과 ‘필리핀 수출개발계획 2023~2028’을 입안하여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함.
  - 이를 위해 수출 관련 장애물 해소, 한계기업 지원, 노동집약 제조업 수출 확대, 전후방 연계 강화를 통한 수출 다변화, FTA 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정책 패키지로 구성함.
  - 4대 산업 클러스터로 ‘산업기계 및 운송’, ‘기술 미디어 및 통신’, ‘보건 및 생활과학’, ‘농업 및 식량안보’를 지정하고, 세계시장에서 필리핀 상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주도 전략을 구체화함.
  - 특히 광업 부문에서의 자국 내 규제 철폐를 통해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신규광산 개발금지 관련 법을 폐기하고, 노천채광 금지를 해제하였으며, 필리핀 수출개발계획 2023~2028의 8대 중점 업종 중 하나로 광업(금, 구리, 니켈 등)을 선정함.

### 3. 한·말레이시아, 한·필리핀 경제의 보완성

#### 가. 수출 비교우위 상호 보완성

■ 한국은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매우 높은 중간재 무역 비율로 미루어볼 때 양국 모두 양자 무역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참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0) 저자들은 한 국가의 수출 품목 조합의 생산성 수준(productivity level that corresponds to a country's export basket)을 나타내는 지수를 구축하여 경제 성장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함.

11) 김남석, 이재호, 신민금, 김제국(2024), 『동남아 주요 5개국의 통상전략과 경제성장 경로: 수출주도성장전략의 평가와 전망』,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4-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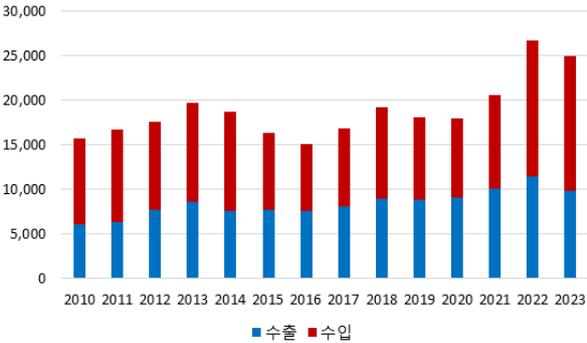
12) 위의 자료.

- 2023년 기준 한·말레이시아 무역액은 약 250억 달러로,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수출의 약 81%,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수입의 약 79%가 중간재임.
-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 기기(HS 85)와 광물성 연료(HS 27)가 양국 간의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무역액 상위 2개 품목으로, 해당 품목을 중심으로 양국 간 생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
- 천연자원 부국인 말레이시아로부터의 활발한 자원 수입으로 구조적인 적자가 발생하고는 있으나, 최근 SK넥실리스 및 삼성SDI 등의 현지 제조단지 조성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제조업 연계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음.

■ 한국은 필리핀에 대해서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수출에서는 중간재의 비중이 압도적이거나, 수입에서는 중간재와 더불어 자본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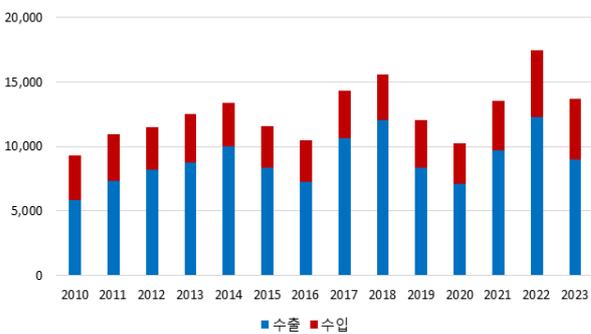
- 2023년 기준 한·필리핀 교역액은 약 137억 달러로,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의 약 82%가 중간재임.
- 한국의 대필리핀 수입의 약 44%가 중간재이고, 자본재가 약 25%를 차지하는 바, 한·말레이시아 무역 구조와는 다른 양상을 가짐.
- 이는 한국이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위 세부 품목이 전자집적회로(HS 8542), 전동기와 발전기(HS 8501) 등을 포함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양국 기업이 가치사슬의 여러 단계에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냄.

그림 1.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4. 11. 25.).

그림 2. 한국의 대필리핀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4. 11. 25.).

■ 한·말레이시아, 한·필리핀은 상호 보완적 수출 비교우위 분포를 형성하고 있는바, 향후 통상환경 개선을 통한 양자 무역 확대는 양국 모두에 후생 증대를 가져다줄 수 있음.

-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대세계 시장 비교우위는 기계 및 이동수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품목군에서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에 비해 두드러짐.
  - 일반 제조품 및 공산품의 경우 필리핀과 비교하면 한국의 비교우위가 두드러지지만, 말레이시아와 비교 시 한국의 비교우위가 두드러지지 않음.
- 반면에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모두 광물, 연료, 동식물성 기름 품목군에서는 한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두드

- 러지고, 농축산품, 음식, 식용제품 품목군에서도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음.
- 이와 같은 3개국의 비교우위 품목 분포는 한·말레이시아, 한·필리핀 간의 추가적인 무역 확대가 당사국 소비자/기업들에 저렴한 선택지를 더 많이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고, 양의 후생 증대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을 시사함.

그림 3. 현시비교우위 기준 3개국 비교우위 품목군별 현황

(단위: SITC Rev.3 3-digit 기준 품목 수)



주: 1) 3개국이 세계시장을 상대로 보유하고 있는 비교우위 품목 수를 품목군별로 도시한 결과임.  
 2) 농축산품, 음식, 식용제품: SITC Rev.3 챕터 1, 2.  
 3) 광물, 연료, 동식물성 기름: SITC Rev.3 챕터 3, 4, 5.  
 4)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SITC Rev.3 챕터 6.  
 5) 일반 제조품 및 공산품: SITC Rev.3 챕터 7, 9.  
 6) 기계 및 이동 수단: SITC Rev.3 챕터 8.  
 자료: RCA Radar 자료 기반(검색일: 2024. 11. 25.)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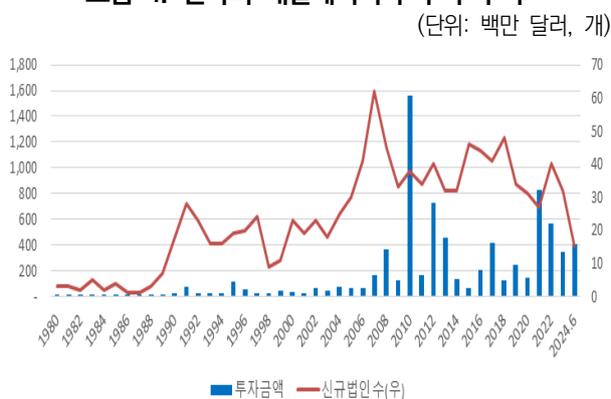
## 나. 전략산업 협력 현황 및 전망

### 1) 투자 현황

- 말레이시아가 미·중 패권경쟁으로 대체 생산기지로서 주목받음에 따라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투자는 최근 증가세인 반면, 대필리핀 투자는 부진한 상황임.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20위,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이은 4위 투자대상국으로, 투자액은 약 78억 달러임(비중 0.9%, '24. 6. 누적 투자금액 기준).
  - 2010년 롯데케미칼이 말레이시아 현지 석유화학기업인 타이탄을 인수하며 대말레이시아 투자액이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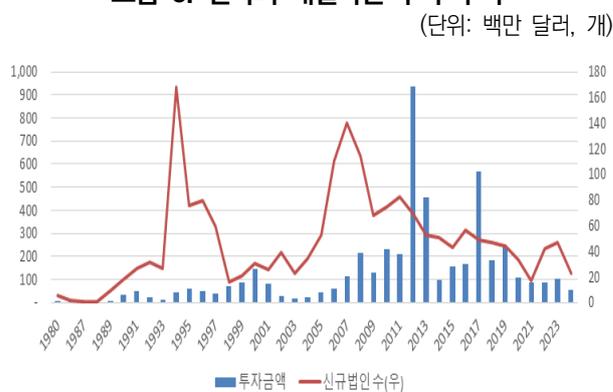
- [필리핀] 필리핀은 한국의 28위,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는 5위 투자대상국으로, 투자액은 약 50억 달러임 (비중 약 0.6%, '24. 6. 누적 투자금액 기준).
- 필리핀에 대한 투자가 부진한 데는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성상 열악한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 상대적으로 낮은 필리핀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도, 잦은 자연재해, 치안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2010년대 초반 이례적으로 대필리핀 투자가 급증한 것은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수빅조선소 관련 대규모 투자에 기인함.

그림 4.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투자 추이



주: 2024년은 6월 말까지의 통계임.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24. 11. 25.).

그림 5. 한국의 대필리핀 투자 추이



주: 2024년은 6월 말까지의 통계임.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24. 11. 25.).

## 2) 말레이시아

-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수소, CCS, 전기차(EV)·배터리 등 친환경 미래산업 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핵심광물, 방산 등 전략산업 협력도 강화하고 있음.
- [수소] 양국은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의 수력발전을 활용해 생산한 그린수소를 국내에 도입하는 '사라왁 하이비스커스(H2biscus)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무탄소 에너지 구상'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지를 확보한 만큼, 향후 양국간 수소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해당 사업에는 삼성E&A·롯데케미칼·한국석유공사·말레이시아 SEDC에너지 등 기업이 참여 중이며, 삼성E&A가 2023년 11월 기본설계에 착수, 2024년 말에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최종 투자를 결정할 예정임.
-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그린수소 생산을 포함해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산업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 한국의 범한퓨얼셀과 말레이시아의 MSCA는 수소 특화 도시개발을 위한 훈련 및 역량 강화, 수소에너지 사이클 및 활용 인프라 정보 공유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업무협약 MOU를 체결함(24. 11.).<sup>13)</sup>

1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024. 11. 25.),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 방한 계기, 한-말레이시아 통상장관회담 열려」.

- [CCS] 양국은 한국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액화하여 말레이시아로 운송하여, 해양지중저장해 대기 중 탄소를 감축하는 ‘셰퍼드 CCS 프로젝트(Shepherd CCS Project)’를 추진 중이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규모가 연 200만 톤에 달하는 해당 프로젝트에는 한국석유공사, 삼성E&A(주관), 삼성중공업, 롯데케미칼, SK에너지, SK에스온, 한화,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의 8개 사가 참여 중이며, 2026년에 건설 공사에 착수해 2029년에 상업 가동할 예정임.
  - 위 프로젝트는 아시아 최초의 CCS 허브 프로젝트로서 의의가 크며, 한국기업들이 말레이시아와 CCS 전 과정 밸류체인을 개발 중으로, 여러 기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일괄적으로 처리해 처리 및 이송하면서 경제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양국은 2024년 11월 양자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양국 간 국경통과 CCS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했으며, 해당 MOU를 토대로 양국 간 ‘이산화탄소 국경 간 이동을 위한 협약’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sup>14)</sup>
  
- [EV·배터리] 양국 간 전기차(EV) 및 배터리 관련 민간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가 2050년까지 자국 내 EV 비중을 80%로, EV 현지생산 비중을 9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투자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 현대차는 2025~30년 말레이시아에 총 21억 5,900만 링깃(약 4억 7,900만 달러, 한화 약 6,735억 원)을 투자해 SUV(Sports Utility Vehicle), MPV(Multi-Purpose Vehicle) 등 생산을 시작으로 현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EV로 확대할 계획임.<sup>15)</sup>
    - 현대차는 현지 파트너 기업인 이노콤포와 협업해 2025년 중반부터 스타리아 현지 위탁생산(CKD)을 시작해 중대형 SUV와 MPV로 확대하고, 연료별로는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HEV)를 중심으로 생산하다가 향후 EV로 확대할 예정임.
    - 현대차는 말레이시아 현지 충전 인프라 건설, 배터리 생산 라인 구축 등 EV 생태계 조성도 지원하기로 함.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사라왁주(州) EV 배터리용 동박 생산시설, SK넥실리스의 동박 생산 라인, 삼성 SDI의 원형 배터리 생산 라인 등 양국 간 소재를 포함한 배터리 산업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핵심광물] 한국은 핵심광물 보유국인 말레이시아와 기관 간 핵심광물 협력 MOU를 체결하여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함.

  - 말레이시아는 희토류 매장량 세계 9위 국가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희토류 산업을 ‘고소득국 도약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선정하고 자국 내 업스트림~다운스트림에 이르는 희토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2024년 11월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MBI프렝가누와 ‘핵심광물(희토류) 관련 포괄적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이는 관련 정보 교환, 무역·투자·사업 촉진, 공동 연구개발, 인적 교류 등의 협력을 골자로 함.

14) 위의 자료

15) 『연합뉴스』(2024. 11. 26.), 「현대차, 말레이시아 6천700억원 투자…미중 갈등 속 아세안 공략(종합)」.

■ [방산] 말레이시아는 군 현대화 계획 추진에 따른 지속적인 무기체계 수요, 한국과의 긴밀한 방산협력 등 요인으로 향후 양국 간 방산 및 안보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sup>16)</sup>

- 한국은 2023년에 말레이시아에 FA-50 경공격기 18대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9.2억 달러 규모), 2026년부터 인계할 예정으로, 양국은 2024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된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서 해당 계약을 바탕으로 방산협력 모멘텀을 이어가기로 논의하였음.
-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으로 전력 증강 필요성이 고조됨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군 현대화 계획을 마련하고 해군력과 공군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어, 무기체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말레이시아는 2025년에 경공격기 교체 2차 사업의 일환으로 경공격기 18대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 대말레이시아 방산 수출 유망 품목은 연안전투함, 연안임무함, 잠수함, 경공격기, 차륜형 장갑차 등임.<sup>17)</sup>

### 3) 필리핀

■ 한국과 필리핀은 핵심광물, 원전, 방산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핵심광물] 필리핀은 니켈·코발트·금·구리·크롬 등 광물자원 부국으로, 필리핀 정부가 환경문제를 이유로 금지했던 신규 광산개발을 허용함에 따라(‘21. 4.) 핵심광물 분야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필리핀 정부는 환경보호를 이유로 2012년부터 9년 동안 유지한 「신규 광산개발 금지법」의 효력을 중지하고, 광산개발을 재개하는 신규 법안을 2021년 4월에 제정하였음.<sup>18)</sup>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광업 부문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2017년 이후 금지했던 노천광산 개발을 2021년 12월에 허용하기로 조치함.<sup>19)</sup>
- 한국과 필리핀 정부는 2024년 10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에서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핵심광물 탐사·기술개발, 원자재 공급망 중단 시 상호지원 등에 합의하였음.
- 한국기업 포스코퓨처엠은 필리핀 현지 기업과 합작사업 합의각서(MOA)를 체결(‘23. 8.)하였고, 현지에서 배터리를 양극재 핵심원료인 니켈 생산에 나섰으며, 팔라완 지역 광산에서 니켈을 공급받을 예정임.<sup>20)</sup>

■ [원전] 필리핀 정부가 전력난 해소, 온실가스 감축 등을 목표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바, 양국은 2024년 10월 체결한 바탄원전 타당성조사 협력 MOU를 바탕으로 원전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은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바탄원자력발전소를 건설했으나(미국 웨스팅하우스 건설), 1980년대 중반 정정불안과 부패 의혹, 환경과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가동하지 않고 지난 수십 년간 방치해옴.
- 필리핀 에너지부는 2024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2032년까지 최소 1,200MW 용량의 상

16) 심순형, 윤정선, 김미정(2022), 「말레이시아 방위산업 시장분석과 수출전략」, ISSUE PAPER 2022-04, p. 9, 산업연구원.

17) 위의 자료.

18) Reuters(2021. 4. 15.), "Philippines lifts nine-year ban on new mines, to boost revenues"(검색일: 2024. 11. 30.).

19) Reuters(2021. 12. 28.), "Philippines ends open pit mining ban to reinvigorate industry"(검색일: 2024. 11. 30.).

20) 『매일경제』(2023. 8. 18.), 「포스코퓨처엠, 친환경 기술로 필리핀서 니켈 생산 추진」(검색일: 2024. 11. 30.).

업용 원전 가동을 시작하고, 발전용량을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4,800MW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함.<sup>21)</sup>

- [방산] 한국은 필리핀에 원양 경비함, 초계함,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하는 등 방산 분야 협력을 지속했으며, 필리핀 정부가 개정 군 현대화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최신 방산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은 미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한국의 4위 방산 수출 유망국가로 선정됨(2020~24년 기준).<sup>22)</sup>
- 필리핀은 한국에서 군용 트럭, 유도무기 등 무기체계를 꾸준히 구매하고 있으며, 최근 모든 무기체계를 G2G 형태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음.<sup>23)</sup>
- 필리핀 정부는 2024년 11월 기준 '개정 군 현대화계획' 3단계(2023~27년)를 추진 중으로, 전투기, 함정, 잠수함 등 최신 장비 도입에 대한 수요가 큼.

#### 4. 관계 격상의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시사점

- 한국의 통상 당국은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이 적극적으로 입안 중인 수출주도성장전략을 고도화하는 데에 있어서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한·말레이시아: 수소, CCS, EV·배터리] 민간 차원에서 협력이 이미 활성화된 수소, CCS,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당국은 관련한 비관세 장벽/통관절차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자 FTA 협상 단계에서 적극 반영하고, 신규 투자 저해 요인을 검토해야 할 것임.
- 2025년까지 타결될 예정인 양자 FTA는 기존의 다자 자유무역협정인 한·아세안 FTA와 RCEP에 미처 담지 못했던 신통상 분야(디지털 및 녹색산업) 시장 개방 및 비관세 장벽 추가 완화를 담아내어, 실질적으로 양국 간의 무역 추가 자유화 효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말레이시아: 핵심광물, 방산] 정부 주도의 의제 조정이 필요한 핵심광물 분야와 방산 분야의 경우, 외교관계 격상을 반영하여 양국의 안보 차원 논의에 활용할 수 있음.
- 핵심광물 분야는 한국의 경제안보 증진을 위해 말레이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임과 동시에, 방산 분야는 말레이시아의 군사안보 증진에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임.
  - 한국이 말레이시아의 핵심광물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 있는 패키지가 무엇인지에 관해 한국의 통상 당국은 민간 업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방산 기업의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이 향후 후속 방산 수출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당국의 객관적인 시장 평가도 필요함.

21) 『연합뉴스』(2024. 9. 26.), 「필리핀 “2032년까지 상업용 원전 가동 개시 목표”」.

22) 김미정, 윤정선, 안영수(2020), 『2020 KIET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p. 33.

23) 위의 자료, p. 96.

- [한·필리핀: 수입 확대, 개발협력] 양자 무역이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대필리핀 수입 품목·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의 필리핀 현지 개발협력 사업 참여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지속적인 양자 무역 흑자로 인하여 필리핀 내에서 ‘한국과의 무역 확대가 필리핀 국익에 반하는 조치’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필리핀 유권자들은 다른 국가들의 유권자들에 비해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필리핀 당국의 정책 입안자들도 지속적인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민감한 태도를 취하기 쉬운 구조임.<sup>24)</sup>
  - 필리핀 정부가 열악한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수송 인프라를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바, 한국의 개발협력과 연계된 기여를 구상하여 한·필리핀 경제협력의 실효성을 필리핀 국민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 [한·필리핀: 인적 교류]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필리핀 간 인적 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번 관계 격상을 계기로 양국 인적 교류 저해 요인을 재정비 및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가 추진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의 장점과 한계점을 분석하여 추후 관련 후속사업에서는 절차상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고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진단이 요구됨.
  - 필리핀 국민과 노동자가 한국에 직접 오는 인적 교류 이외에도, 필리핀의 현지 노동집약적 제조업/서비스업을 한국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집약적 생산단계의 현지 투자방안을 민·관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EP**

24) 김남석(2023), 『동남아·대양주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연구와 시사점: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23-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